

### 사설

# 조국해방의 감격을 통일의 환희로 이어가자

오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잔악한 식민지기반에서 자유와 해방을 되찾은 때로부터 70돛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한 40여년간은 피눈물나는 민족수난의 역사였다. 나라없던 조선민족은 중세기적인 폭압과 학정밑에서 시달리며 삶의 권리를 송두리채 빼앗겼으며 수백만의 청장년들이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죽음의 공사장으로 끌려가 마소처럼 흑사당하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지어 자기의 성과 이름, 글마저 빼앗겨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데도 없는 조선민족이었다.

그러던 우리 겨레는 해방을 맞아 비로소 압제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운명전환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도란에 빠졌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운명을 구원해주신분은 바로 철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과 불행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시면서 기어이 나라를 다시 찾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며 14살 어린 나이에 만경대사립문을 떠나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다.

강도일제를 쳐부시자면 무장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독립의 방략을 천명하시고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의 대전을 선포하시고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조직전개하시었다.

그 나날은 역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투쟁의 길이었다. 날과 날을 이어 계속되는 적들과의 피어린 격전,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 끊임없이 겹쳐드는 굶주림, 처참에서의 악전고투와 두차례에 걸치는 힘겨운 북만원정,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 등 항일의 나날 아버지수령님께서 겪으신 온갖 고초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러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나가시며 신출귀몰한 유격전법으로 도처에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신 수령님이시었다.

항일 무장투쟁의 전기간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자주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온 겨레를 조국해방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시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당겨오시었다. 일제의 패망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맞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으로 일제침략군에 섬멸적타격을 주는것과 함께 여기에 호응하여 전인민적봉기를 일으키며 전민항쟁무장조직들의 배후련합작전을 벌릴때 대한 조국해방 3대로선을 제시하시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마침내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었다.

이처럼 조국의 해방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령도핵심으로 하는 전민항쟁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리시기 위한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리신 결과에 이룩된 민족사적사변이다.

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일제의 100만 대군을 위락력하시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의 태양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새 삶과 자주적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밝은 길



이 열리게 되었다.

해방의 그날 온 삼천리강토가 민족재생의 환희, 해방의 감격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조국해방의 기쁨과 환희, 정녕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분출이었고 그이의 령도밑에 민족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 가려는 겨레의 투지와 의욕의 과시였다.

조국해방의 환희성이 울려 퍼진 때로부터 지난 70년간 공화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끊임없는 발전과 비약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은 해방후 남조선을 타고앉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야망밑에 이 땅을 전쟁의 포화로 뒤덮었다. 하지만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던 청소한 공화국은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기고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우리 겨레는 미국의 강도적인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으며 세계를 제패하고 노예화하려고 접어들던 미제국주의자들을 멸

망의 내리막길에 몰아넣은 승리자로 되었다.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이 땅위에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 다던 어중이떠중이들의 궤변을 짓부시며 비약의 천리마가 날아오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와 계속되는 자연재해, 거기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오늘 공화국은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자위의 핵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해방의 환희가 미국에 의해 얼마 못가 분렬의 비극으로 이어진 때로부터 어언 70년이 되어온다.

지나온 70년은 갈라진 겨레의 고통과 아픔이 강산을 무겁게 짓눌러온 비극의 70년이었고 겨레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위험에 가슴 조이며 살아온 70년이였다. 이제 더이

상 민족의 분렬이 지속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 조선민족은 합쳐져야 살고 둘이 되면 못살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통일은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이고 시대와 력사의 막을수 없는 요구이다.

나라가 갈라진 이래 오늘까지 공화국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길에서 력사적인 7.4공동성명도 탄생하고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도 울려나왔다.

오늘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립장은 변함이 없으며 그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세기를 이어오는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북과 남의 겨레는 피를 나눈 한민족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함께 모여살아야 할 혈육이다. 력사도 하나, 문

화도 하나,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인 조선민족이 외세가 강요한 분렬과 민족리간책동에 의해 지나간 세월 불신하고 대결하며 사는것은 민족사의 비극이고 불행이 아닐수 없다. 이런 불신과 대결이 지속될수록 통일은 그만큼 더 멀어지고 민족이 재난밖에 당할것이 없다.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계속 몰아오는 화근은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신회》와 《통일》을 떠들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동족대결정책을 폐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민족이 조국해방 70돛을 경축하는 지금 이 시각에조차 동족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동족을 헐뜯는 악담들을 늘어놓아 가득이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온 겨레의 규탄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모해하고 암살할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온 겨레의 규탄과 배격속에 수치스러운 과멸을 면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공화국의 평화에호적인 호소를 뿌리치고 외세와 끝끝내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날려보내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증대시킨 남조선당국이 8.15가 지나자마자 또다시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는것이 야말로 민족의 평화념원에 대한 도전이고 이 땅을 기어이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북침불장난소동이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며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정의이며 그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천출유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위력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제압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넓은 길로 이끌어주실것이다.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받들어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여자축구선수들을 따듯이 맞아주시었다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 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빨찌산공격방식으로 눈부신 황금의 9개 꽃을 터뜨리며 맞대든 강팀들인 일본팀, 중국팀, 남조선팀을 여지없이 눌러버리고 련전련승의 체육신화를 창조하여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을 거머쥔 선군조선의 장한 딸, 빨찌산녀전사들이 10일 비행기로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비행장에서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직접 맞아주시었다.

오후 4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을 태운 비행기가 항공역 앞 정류장에 들어섰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정류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비행장은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영예의 금메달을



어머니조국에 안고 온 우리의 장한 여자 축구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이 제시한 빨찌산공격전법으로 싸워 이번 경기대회에서 주체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해방 일흔둑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둑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

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었다.

치열한 경기의 나날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뵈고싶었고 승리의 단상에 올라 조국의 하늘을 그려볼 때에도 자애로운 그 영상이 후덥게 어려와 걱정의 눈물속에 우러르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땅에 도착하는 첫 순간 제일먼저 뵈게 된 여자축구선수들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누르지 못하며 원수님의 품에 와락 안겨들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드넓은 비행장을 가득 메우고 줄지어 늘어선 환영군중은 불굴의 정신력과 투지, 높은 기술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고 승전의 개가높이 돌아온 여자축구선수들을 열광적으로 맞아하였으며 비행장으로부터 평양체육관에 이르는 긴 연도에 펼쳐나온 20여만의 시내근로자들의 환영열기로 평양은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사료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포전에 들어서시어 키높이 자라고있는 먹이작물을 보고 또 보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멋있다고, 회한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집짐승먹이문제를 푸시기 위해 것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흐뭇한 광경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116호농장에서 영양가와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에 대한 시험재배에 성공한 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사료풀의 이름을 몸소 《애국풀》이라고 명명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애국풀》의 영양학적특성과 재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축산에서 기본은 종자와 사료문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놓고볼 때 《애국풀》은 축산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먹이작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자면 풀판조성을 전망성있게 하는것과 함께 수확고가 높은 먹이풀을 널리 재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1116호농장에서 재배하고있는 《애국풀》을 전국도처에 널리 퍼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농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들을 기르



는 모든 곳에서 《애국풀》을 재배할수 있도록 종자확보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비배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과학기술지도서를 만들어 내려보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1116호농장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콩과작물과 우량품종의 강냉이품종들도 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은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모범이며 기수, 선봉대라고 하시면서 기적같은 소식을 듣고 찾아올 때마다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농장, 돌아볼수록 정이 드는 농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116호농장에서 선진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고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육종재배함으로써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도, 시, 군 책임일군들이 이 농장을 참관하게 하여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직관적으로 보게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시험농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불멸의 업적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밝힌다

8월의 하늘가에 해방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던 때로부터 어언 70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온 겨레는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하고있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강도일제의 말발굽에 짓밟혀 신음하던 우리 겨레를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새 삶의 환희를 안겨주신 그 은공만으로도 주석님의 업적은 대대손손 칭송해마지않을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 겨레를 강성과 번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고귀한 정신적재부가 집대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주석님의 조국해방업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며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휘황히 밝혀 주고있다.

조국방문의 나날 여가시간이면 붓끝을 가다듬으며 우리 민족사에 불멸의 년대기로 아로새겨진 항일전의 나날을 다시 펼쳐보는 취지가 여기에 있다.

\* \*

8.15를 맞은 조국은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열풍으로 뜨겁다.

천지개벽된 평양국제비행항 항공역사를 나서며 처음으로 들은 노래도, 방문지 어디서나 깊은 감흥속에 새겨안으며 저도 몰래 따라부른 노래도 《가리라 백두산으로》이다.

안내원이 들려준데 의하면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고 한다.

신문과 방송들은 이 노래와 함께 백두산으로 향한 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들의 답사행군소식을 계속 전하고있다.

조국땅에는 붉은기가 힘차게 나뭇가지와 혁명열, 투쟁열로 끓고있건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레코드판을 돌리듯 《북붕괴설》을 커다랗게 불어 대고있다.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역시 서방나라들이 불어대는 곡조에 박자를 맞추어가며 기회만 있으면 《북변화》 타령을 늘어놓고있다.

이에 대해 얼마전 로씨야의 한 인사가 《산 품의 가족을 벗기려드는 시기상조의 일》이라고 조롱하였지만 무성한 잎새를 자랑하는 나무를 보며 고목이 되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그 허망한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내친김에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의 참뜻을 되새기며 공화국의 전도와 관련한 심층소회를 펴려하고저 한다.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이 땅위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  
...

백두산은 무엇으로 기적들과 행운을 부르고 무엇으로 승리의 길을 향도하는가.

정신적재부라고 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벌리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단순히 걸음  
걸음 왜적을 쳐부시며 혈전을 벌린  
항전사가 아니다.

그 피어린 자욱자욱은 위대한 진리를 안고 새겨진 자욱자욱이며 그 진리를 빛나는 승리로 확증한 자욱자욱이다.

사변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력사에는 다른 나라들의 방조하에 독립을 성취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공고한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  
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자력으로  
《강대국》이라고 뽐내는 일본제  
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을 안아  
왔으니 그야말로 전설같은 기적이 아  
닐수 없다.

그 기적을 낳게 한 비결이 위대한  
주석님의 조국해방업적에 그대로 비  
껴있다.

조국해방은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력사의 필연이었다.

조국해방의 전과정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항일  
무장투쟁로선들과 투쟁강령들, 전략  
전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으로  
확증한 빛나는 년대기로 수놓아  
졌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자주의 기  
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  
으로 조국해방위업을 빛나게 성취하  
시였다.

자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풀어간다는 이 리  
념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  
고있다.

그렇진대 망국의 세월, 재생의 빛  
도 보이지 않고 재기할 힘도 없어 독  
립운동에 나섰던 지사들도 초야에 묻  
혀 시국을 통탄하던 그때 자주의 기  
치를 든다는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파연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무슨 힘  
에 대한 확신으로 자주의 리념을 표  
명하시였는가.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이었다.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우매  
한 민족》, 《자아수양》의 대상으  
로 여기던 인민대중이 주석님께 있  
어서는 위대한 스승이였고 지혜의 바  
다였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  
하며 온 겨레를 단결시키면 능히 빼  
앗긴 조국을 되찾을수 있다, 이것은  
주석님의 확고한 지론이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위하는 이민  
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영  
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  
쟁의 전기간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  
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  
가시였다.

남의 나라 땅에서 무장을 잡고 자  
주로선을 견지하며 조선의 해방을 위  
해 싸운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  
였다.

하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조선공  
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을 해방하고  
자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  
워야 할 신성한 권리를 절대로 포기  
할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지니시  
고 자주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오  
시였다.

쏘베트가 로동계급이 세워야 할 유  
일한 정권형태로 간주되고있던 때에  
인민혁명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  
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  
현하시여 유격근거지에 드리웠던 위  
기를 타개하신분도 김일성주석님이  
시며 좌경분자들이 민족해방의 구호  
를 들었다고 하여 조선의 애국자들  
을 배척하고 마구 처형까지 하던 때  
에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으로 확대강  
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민  
항쟁의 보루를 형성하신분도 위대한  
주석님이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우리의 힘  
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자력  
독립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가 빛발  
쳐 마침내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  
방위업을 성취하는 위대한 력사가 창  
조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백두산총대를  
높이 드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해  
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당시는 사람마다 독립의 길을 여러  
갈래로 찾고있던 때였다.  
렬세한 무기를 들고 의병을 일으키  
고 독립군을 무어 싸우다가 지리멸렬  
당하는 가슴아픈 비극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약소민족의 실음을 통탄하  
며 《독립청원서》라는것을 품고 큰  
나라들의 대문을 두드리고있었다. 조  
선이 왜놈들의 식민지가 된것은 민족  
의 인격과 수양이 낮은데 있다면서  
독립을 위해 《민족인격완성론》이  
나 《민족개조론》 같은것을 주장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대와 교조의 길, 무저항의 수령  
길이 수없이 나왔는 갈림길에서 무  
장한 적은 오직 무장으로 쳐부셔야  
한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총대  
를 높이 추켜드신분이 김일성주석님  
이시였다.  
주석님께서 항일의 총대를 높이 추  
켜드신 그때로부터 《무적항군》이  
라 떠들던 일본군의 패전의 력사가  
시작되고 조국해방의 봄을 안아오는  
빨찌산의 전설같은 이야기가 겨레들  
이 사는 모든 곳에서 기쁨과 환희속  
에 울려 퍼지였다.  
일본군대가 항일유격대의 매복에  
걸려 무리죽음을 당하고 너무도 혼  
쫘이 나 무기와 장구류까지 내버린  
채 도망을 쳤다는 장백현 대덕수전  
투, 신비한 망원전술에 걸려 저들끼  
리 맞붙어 죽일내기하다 수백명의 유  
격대가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잦  
았는가 참으로 귀신이 꾀할 노릇이라  
고 비명을 지른 소덕수전투, 유인기만  
전술과 숙영지야간습격전으로 적들  
을 혼비백산케 한 품의풀어귀전투,  
14도구사가습격전투, 13도구 상촌기  
습소탕전...

재미동포 김춘식

안겨주시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  
워하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신 주석님께서서는 조국해방  
의 최후공격작전도 전민항쟁으로 조  
직전개하시였다.

1942년 일제가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  
고 조직력량은 5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김일성대》, 백두산회, 조국해  
방단, 일철비밀결사, 경성(서울)지  
구 무장봉기준비결사, 라진인민무장  
대 등 일제를 반대하여 도처에서 싸  
운 전민항쟁조직들은 수없이 많았다.  
작고한 최흥희 전 국제레전도련맹 총  
재의 회상에 의하면 일본침략군 내  
부에도 반일학도병무장대가 있었다  
고 한다.

망국의 울분을 안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한 그 력사  
적화폭은 오늘도 민족대단합의 고귀  
한 철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에는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풍  
부한 경험, 빛나는 교범, 귀중한 재  
부들이 집대성되어있다. 그것으로 하  
여 불멸의 그 업적은 공화국만이 아  
닌 온 민족의 생명으로 높뛰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휘황히 밝  
혀주는 등대로 되고있다.

얼마전 나는 서방의 한 신문에  
서 공화국과 관련한 글을 읽은적이  
있다.  
공화국이 밖으로부터의 외압이 계  
속되는 속에서도 독자적인 로선과 정  
책을 시종일관 견지하며 발전과 번영  
을 이룩해가는 비결에 대해 글은 이  
렇게 분석했다.

《첫째로 자주적대를 세워나가는  
북에는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  
는다.  
둘째로 미국에 가장 두려운 공포  
감을 주는 핵억제력을 복은 갖추고  
있다.  
셋째로 강군강민일치라는 보루가  
축성되어있다.》

그 글을 읽노라니 1990년대 중엽 미  
국 하와이 동서방연구센터의 한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글이 떠올려졌다.

그도 역시 공화국이 최악의 시련이  
중첩된 속에서도 건재를 과시하고있  
는 원인에 대해 자주정치, 막강한 무  
장력, 령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위력  
에서 그 답을 찾았다.  
공화국이 걸어온 행로가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와 선군위업을 구현하기  
위한 행로로 일관되어왔으니 똑같은  
주장들이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되  
풀이되고있는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기에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도 공화국의 실상과 판  
련한 글에서 《김일성주석을 제대로  
알아야 북을 리해할수 있다. 조국  
의 존엄과 영광은 모두 김일성주석  
의 혁명사상과 혁명령도, 혁명업적  
과 직결되어있다.》고 서술하였던것  
이다.

조국인민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불  
멸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성  
스러운 행로를 두고 백두의 행군길이  
라고 부르고있다.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  
는 길에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다고  
확신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이다.

오늘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다.  
지금과 같이 제국주의강도배들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세월에 누가  
뵈라고 하든 자기의 사상과 로선을  
자기의 신념과 배짱대로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공화  
국밖에 또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기철조

재미동포 김춘식

안겨주시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  
워하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신 주석님께서서는 조국해방  
의 최후공격작전도 전민항쟁으로 조  
직전개하시였다.

1942년 일제가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  
고 조직력량은 5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김일성대》, 백두산회, 조국해  
방단, 일철비밀결사, 경성(서울)지  
구 무장봉기준비결사, 라진인민무장  
대 등 일제를 반대하여 도처에서 싸  
운 전민항쟁조직들은 수없이 많았다.  
작고한 최흥희 전 국제레전도련맹 총  
재의 회상에 의하면 일본침략군 내  
부에도 반일학도병무장대가 있었다  
고 한다.

망국의 울분을 안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한 그 력사  
적화폭은 오늘도 민족대단합의 고귀  
한 철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에는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풍  
부한 경험, 빛나는 교범, 귀중한 재  
부들이 집대성되어있다. 그것으로 하  
여 불멸의 그 업적은 공화국만이 아  
닌 온 민족의 생명으로 높뛰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휘황히 밝  
혀주는 등대로 되고있다.

얼마전 나는 서방의 한 신문에  
서 공화국과 관련한 글을 읽은적이  
있다.  
공화국이 밖으로부터의 외압이 계  
속되는 속에서도 독자적인 로선과 정  
책을 시종일관 견지하며 발전과 번영  
을 이룩해가는 비결에 대해 글은 이  
렇게 분석했다.

《첫째로 자주적대를 세워나가는  
북에는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  
는다.  
둘째로 미국에 가장 두려운 공포  
감을 주는 핵억제력을 복은 갖추고  
있다.  
셋째로 강군강민일치라는 보루가  
축성되어있다.》

그 글을 읽노라니 1990년대 중엽 미  
국 하와이 동서방연구센터의 한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글이 떠올려졌다.

그도 역시 공화국이 최악의 시련이  
중첩된 속에서도 건재를 과시하고있  
는 원인에 대해 자주정치, 막강한 무  
장력, 령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위력  
에서 그 답을 찾았다.  
공화국이 걸어온 행로가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와 선군위업을 구현하기  
위한 행로로 일관되어왔으니 똑같은  
주장들이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되  
풀이되고있는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기에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도 공화국의 실상과 판  
련한 글에서 《김일성주석을 제대로  
알아야 북을 리해할수 있다. 조국  
의 존엄과 영광은 모두 김일성주석  
의 혁명사상과 혁명령도, 혁명업적  
과 직결되어있다.》고 서술하였던것  
이다.

조국인민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불  
멸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성  
스러운 행로를 두고 백두의 행군길이  
라고 부르고있다.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  
는 길에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다고  
확신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이다.

오늘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다.  
지금과 같이 제국주의강도배들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세월에 누가  
뵈라고 하든 자기의 사상과 로선을  
자기의 신념과 배짱대로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공화  
국밖에 또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기철조

재미동포 김춘식

안겨주시였다.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  
워하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신 주석님께서서는 조국해방  
의 최후공격작전도 전민항쟁으로 조  
직전개하시였다.

1942년 일제가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  
고 조직력량은 5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김일성대》, 백두산회, 조국해  
방단, 일철비밀결사, 경성(서울)지  
구 무장봉기준비결사, 라진인민무장  
대 등 일제를 반대하여 도처에서 싸  
운 전민항쟁조직들은 수없이 많았다.  
작고한 최흥희 전 국제레전도련맹 총  
재의 회상에 의하면 일본침략군 내  
부에도 반일학도병무장대가 있었다  
고 한다.

망국의 울분을 안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한 그 력사  
적화폭은 오늘도 민족대단합의 고귀  
한 철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에는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풍  
부한 경험, 빛나는 교범, 귀중한 재  
부들이 집대성되어있다. 그것으로 하  
여 불멸의 그 업적은 공화국만이 아  
닌 온 민족의 생명으로 높뛰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휘황히 밝  
혀주는 등대로 되고있다.

얼마전 나는 서방의 한 신문에  
서 공화국과 관련한 글을 읽은적이  
있다.  
공화국이 밖으로부터의 외압이 계  
속되는 속에서도 독자적인 로선과 정  
책을 시종일관 견지하며 발전과 번영  
을 이룩해가는 비결에 대해 글은 이  
렇게 분석했다.

《첫째로 자주적대를 세워나가는  
북에는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  
는다.  
둘째로 미국에 가장 두려운 공포  
감을 주는 핵억제력을 복은 갖추고  
있다.  
셋째로 강군강민일치라는 보루가  
축성되어있다.》

그 글을 읽노라니 1990년대 중엽 미  
국 하와이 동서방연구센터의 한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글이 떠올려졌다.

그도 역시 공화국이 최악의 시련이  
중첩된 속에서도 건재를 과시하고있  
는 원인에 대해 자주정치, 막강한 무  
장력, 령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위력  
에서 그 답을 찾았다.  
공화국이 걸어온 행로가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와 선군위업을 구현하기  
위한 행로로 일관되어왔으니 똑같은  
주장들이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되  
풀이되고있는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기에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도 공화국의 실상과 판  
련한 글에서 《김일성주석을 제대로  
알아야 북을 리해할수 있다. 조국  
의 존엄과 영광은 모두 김일성주석  
의 혁명사상과 혁명령도, 혁명업적  
과 직결되어있다.》고 서술하였던것  
이다.

조국인민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불  
멸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성  
스러운 행로를 두고 백두의 행군길이  
라고 부르고있다.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  
는 길에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다고  
확신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이다.

오늘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다.  
지금과 같이 제국주의강도배들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세월에 누가  
뵈라고 하든 자기의 사상과 로선을  
자기의 신념과 배짱대로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공화  
국밖에 또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기철조

공화국이 걸어온 행로가 백두에서  
개척된 자주와 선군위업을 구현하기  
위한 행로로 일관되어왔으니 똑같은  
주장들이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되  
풀이되고있는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한 위대  
한 력사를 가진 인민들에게는 불가능이  
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군의 력사  
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  
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민족자주위업, 선군위업을 빛나게 계  
승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  
해방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나  
고있다.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  
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찬  
연히 빛내이고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백승의 기치임을 실증해  
주고있다.

그 불멸의 업적은 통일조국을 마중  
해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온 겨레가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였던것처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  
하자란것이 백두산을 우러르며 통일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은 겨레의 지  
향이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이 아무리 발악해  
도 백두산을 우러르며 자주통일을 마  
중해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은 결코  
막을수 없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인  
우리 조국은 반드시 김정은통일강국  
으로 빛을 뿌릴것이며 온 누리를 진  
감하는 승리의 축포성과 더불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해방  
업적은 세월이 무궁토록 길이 빛날  
것이다.

# 마두산이 전하는 이야기

마두산은 해발높이가 534m에 달하는 산으로서 평안남도 안주일대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생김새가 말대거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그렇게 부

르는 마두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이끄신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설되 었던 안주지구 비밀근거 지의 밀영들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마두산은 일제에 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 격작전을 펼수 있는 아주 적합한 천험의 보루였던 것이다.

내도록 강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 인민들은 산에 올라가 여느 나무의 껍질을 도끼로 벗겨 다 순사들에게 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이 지구의 산들에는 도끼자리가 난 나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는 김장군 반드는 백두산의 별무리》, 《평안민들은 김일성장군 따라나서》, 《백두산대성만세》 등 구호나무들은 무수하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보시면서 이 구호문헌은 수령님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항일혁명선열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정말 훌륭한 구호문헌이라고 하시

었다. 마두산의 울창한 수림 지대 곳곳의 나무들에 새겨져있는 수십년전의 글 발들은 말해주고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한 해방의 아침이 과연 어떻게 왔는가를.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전하며 마두산의 숲은 오늘도 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 조국해방작전을 위해 꾸려진 비밀근거지

마두산은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막혀있는 묘한 지세로 하여 예로부터 은신처로도 아주 적합하고 적의 공격을 막는데도 유리한 곳으로 되어왔다.

임진왜란시기 묘향산에서 산대사가 의병투쟁에 펼쳐나선 승려들에게 무술을 전마시켰다는 곳도 바로 마두산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마두산을 단순히 은신처가 아니라 일제에 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조국해방을 앞당기기 위

하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광산들이 있던 그 지구에 비밀근거지를 꾸려놓으면 일시에 많은 노동자들을 반일항쟁으로 불러일으킬수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백두산으로 드나들기 유리하고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나가는데 편리했으며 넓은 벌을 리용하여 식량저축도 하고 주요 철도와 도로망을 끼고있어 활동하기에도 좋았다.

## 구호나무들은 오늘도 말한다

지금까지 마두산밀영에서는 51점의 구호나무들이 발굴되었으며 안주지구에서 발굴된 구호나무들 가운데서 백두산3대장군을 칭송한것은 32점이다.

오래전 안주일대에 항일투사들이 글을 새긴 구호나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해방전 일제순사들은

이 지구의 산들에 구호들이 새겨진 나무들이 많은것을 두려워하였고 특히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구호나무들이 많은 사실에 대해 더욱 무서워하였다. 그리하여 구호나무들을 찍어 버리려고 하였으나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내몰아 글자를 도끼로 오려



## 가사 재중동로들의 자랑

최수봉(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1. 구름넘어 령을 넘어 우리모두 항일혁명사적지로 가자 만주광야 동북지역에는 민족의 새별이 솟아나고 선군혁명의 발원지가 있다네 아, 백두산을 안고사는 재중동로들 자랑이라네

조선의 빨치산 탄생하고 반일유격근거지가 있다네 아, 백두산을 안고사는 재중동로들 긍지이라네

2. 강을 건너 늪을 지나 우리모두 항일혁명전구에서 가자 만주광야 동북지역에는

3. 재중동포 그리는 곳 우리모두 항일혁명전적지로 가자 만주광야 동북지역에는 20세기 태양이 빛 뿌리고 주체혁명기반 다진 곳 있다네 아, 백두산을 안고사는 재중동포들 영광이라네

## 가사 나의 고향

김연주(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문화국 국장)

1. 내가 사는 고향은 백두산자락 김일성대원수님 전적 어린 곳 (후렴) 넓디넓은 산과 들 푸르른 밀밭 여기서 내가 살고 우리 삽니다

2. 내가 사는 고향은 백두산자락 김정일대원수님 탄생하신 곳 (후렴)

3. 내가 사는 고향은 백두산자락 김정은원수님 모신 대가정 (후렴)

## 가사 백두산야 찾으니

김송미(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증남지구협회 회장)

1. 백두산야 찾으니 주석님영상 따사론 해님처럼 반겨주시네 빼앗긴 내 나라 찾아주시고 인민의 새세상 펼쳐주셨네

따뜻한 장군님 그 품이 오늘도 그림 습니다 못 견디게 그림습니다

환하신 그 미소 오늘도 눈앞에 어렴 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할 태양의 미소 자애론 주석님 그 영상 꿈에도 그려 봅니다 못 견디게 그림습니다

3. 백두산야 찾으니 원수님영상 따사론 해님처럼 반겨주시네 주석님모습으로 장군님모습으로 백두산마루에 밝게 빛나네

2. 백두산야 찾으니 장군님영상 따사론 해님처럼 반겨주시네 재중동포 우릴 조국에 불러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셨네

세상이 열백번 변해도 끝까지 지키 여가리 원수님 계시기에 번영할 주체의 조국

이 한몸 다 바쳐 이 세상 끝까지 지키여가리 무궁할 내 조국 위해

어버이 그 품에 안기여 두볼을 적셨네 죽어도 잊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그 품

백두산 백두산 주체조선의 태양의 성산 재중동포 우리들의 넋을 담아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손에 손잡고 백두산으로 가리라

## 단상 만경대에서 개선문까지

조국해방의 년륜이 일흔번째로 새겨지는 8.15를 맞으며 얼마전 나는 어린 자식의 손목을 잡고 개선문을 찾았다.

일제에게 지지리도 억눌리고 짓밟혔던 조선인민에게 해방의 밝은 빛을 안겨주신 민족의 은인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그대로 습배여있는듯싶은 모란봉기슭의 개선문이다.

개선문 앞뒤면에 새겨진 《김일성장군의 노래》 글밭이며 조국에 개선하신 어버이수령님을 흠모하여 만세의 환호성을 터뜨리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형상한 부각상, 아치형문에 새겨진 70송이의 진달래꽃, 옆면에 새겨진 백두산 천지 등을 새겨보던 나의 눈에 류달리 안겨드는 글밭이 있었다.

《1925》, 《1945》.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고향 만경대를 떠나신 그때로부터 민족재생의 봄을 안고오신 그날까지는 무려 20년세월이다.

생각이 깊어졌다.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개선문까지 단 몇시간이면 가닿을 길이건만 어버이수령님께서 20성상에 걸친 긴고한 혈전만리길을 헤쳐가신 것이다.

40명으로부터 18명으로 줄어든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뼈를 에이는 추위와 허리치는 장설속에 묻혀 쫓겨온 진전하지 못하고있는데 적들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달려든 라자구등판의 광경이며 축한에 걸리신

수령님께서 역척의 신념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대원들에게 들려주신 《반일전가》, 사랑하는 전우를 잃고 그 쓰라린 아픔에 전우의 시신에 언 땅의 흙을 엮지 못하게 하시었던 로야령의 언덕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전의 나날에 겪으시었던 시련을 오늘도 전하고있지 않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과 무송원정을 회고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 남녘에서 북대정자에 이르는 1938년 겨울의 행군을 의례히 생각한다, 물론 그 행군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울수 있으리만큼 간고했던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고성으로 말하면 무송원정도 그에 못지 않은 어려운 행군이였다고 하시면서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쪼들리고 수면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는가고 쓰신 회고록의 글줄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그 항일의 20성상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삼촌도 동생도 잃으셨고 가슴에이는 전우들의 희생도 겪으시었다.

정녕 20성상 항일의 길은 그이께서 겪으신 모진 고생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조국해방의 길이었다.

개선문에 새겨진 《1925》, 《1945》의 글밭이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민족의 어버이의 위대한 생애가 실려있는 불멸의 글밭로 가슴뜨겁게 안겨와 쉬이 눈길을 땄수가 없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김연희

조국해방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모진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헤치시며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으로 안아오신 민족사의 획기적 사변이다.

그때로부터 70성상 공화국을 자주와 존엄, 부강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떠밀어 온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오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이 땅에서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지난 4월 불어치는 칼바람을 가슴후련히 맞으시며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비행사들과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떠오르는 장쾌한 해돋이도 부감하시었다.

그날 백두산의 정점 장군봉에 거연히 서시여 천하를 굽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같은 모습을 뵈으며 온 겨레는 그이시야말로 조선민족이 받들어 올린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위인이심을 누구나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백두의 칼바람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역세계 심어주시는 신념의 역센 바람이다. 신념은 그 어떤 난관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정신적양식이고 사회주의를 건설해가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무기이다.

지난해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문헌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할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

였다. 백두의 칼바람이야말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선열들의 당부이고 사치판에서도 솟구쳐오를수 있게 하는 거세 찬혁명의 폭풍이며 백전백승의 명맥을 이어준 활력소이기

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에서 백두의 칼바람을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계신다.

높고 험준한 칠령과 오성산을 넘으시고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을 찾으실 때에도 그이의 마음속엔 백두의 밀림이 설렘였고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의 어리석은 압살의 광풍이 더더욱 우습해지는 이 시각 백두의 칼바람은 적대세력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내리고 이 땅에는 사회주의승리의 훈향을 주고있다. 침략의 불구름이 항시적으로 머

리우를 떠돌고 비렬한 제재의 광풍이 몰아치지만 공화국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나오고 인민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적대세력의 새 전

쟁도발책등을 단호히 제압하시며 민족의 자주통일

운동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자주통일을 위한 밝은 앞길을 밝히시여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었다.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격동적인 애국의 호소는 통일을 부르는 백두산의 퇴성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겨레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있어 머지않아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은 거어

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리찬영

시 북 음

# 백 두 에서 부 르 는 통 일 의 노 래

## 백 두 산 송 가

김 태 롱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시인들이  
 백두여, 너의 정상에 올라  
 가슴치는 시정 터치였더냐  
 폭풍쳐 내달리는 거센 눈보라  
 하늘을 찌르며 솟은 아아한 산악들  
 얼마나 많은 찬가에 실려 노래되었더냐

자유의 노래, 희망의 노래

오, 격찬의 토로  
 감격과 흥분 화산처럼 터쳐올려도  
 그 숭엄함, 그 위대함, 그 장중함  
 한끝마저도 노래할수 없고

해방의 그날로부터 어언 70년  
 8.15를 안아온 혁명의 성산 우리러  
 세월이 엮어드린 노래 하얗건만  
 다함이 있었던가  
 천금같은 말로도 다 노래하지 못할  
 거룩함의 절정우에 서있는 백두산

홍분으로 특특 가슴뛰는 시어도  
 맵짠 칼바람소리앞엔 무색해지더라  
 뜨겁게 울리는 노래의 구절구절도  
 하늘을 찌른 천년절벽우엔 가닿지 못하더라

짓밟힌 강토에 새봄을 불러  
 수령님 헤쳐오신 피어린 20성상  
 령봉에 새겨  
 눈보라 폭풍으로 터치  
 그 만고풍상 전하는  
 백두산 너는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기념비

해방의 은인 만고의 업적이  
 층층절벽마다 전설로 새겨져 눈부시고  
 존엄과 긍지, 광만과 희열  
 신념과 배짱이 무엇인가를  
 다 말해주는 백두산  
 그대는 우리의 시이며 우리의 노래

백두산 너는 다시 찾은  
 이 나라의 국호 조선이란 말  
 노예의 쇠고랑에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이 나라 인민이 찾고 부른

오, 북으로는 진정 노래할수 없어  
 심장의 피를 뚫이는 걱정으로  
 목청껏 부르고 불러보는 백두산  
 불러 수령님 태양의 모습 안겨어오고  
 바라보아 그이의 업적으로 높고높은 산  
 백두산, 그 부름이 그대로 겨레의 송가이어라

## 꺼 지 지 앓 는 불 빛

리 송 일

소백수물소리 유정한  
 여기 천고밀림속의 백두산밀영  
 붉은기 날리는 사령부귀틀집 트랙에  
 내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서니

밀영의 그 밤들에만 타올랐던가  
 한평생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사신  
 수령님의 그 맑고맑은 밤들에  
 백두의 등잔불은 험없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간밤도 지새우신 빨찌산 김대장  
 방금 전장으로 떠나가신듯  
 열려진 귀틀집창문으로 보여와라  
 통나무를 쪼개 만든 책상우에  
 자그마한 등잔 하나  
 벽에 걸린 조선지도

세월이여, 말하여다오  
 백두산의 불빛 집무실창가에 이으시고  
 겨레의 운명을 두고 마음 쓰신 백두산시절  
 처럼  
 분렬된 이 땅 겨레의 아픔을 두고  
 잠 못들며 바치신 그이의 천만헌신을

짓밟힌 조국땅 신음하는 겨레에게  
 재생의 빛발 뿌려주시려  
 타오르는 등잔불 추켜들어  
 저 조선지도를 비추시던 수령님 모습  
 아, 그날의 조선지도는  
 돌로 갈라진 조국이 아닌 하나의 강토

그 불빛 아래서  
 통일의 진로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들이 찬연히 빛발쳤고  
 세월이 못 잊는 어버이사랑  
 민족애의 뜨거운 화폭들이 펼쳐졌거니

그 등불 잠시라도 꺼지면  
 민족의 숨결도 꺼지는것만 같아  
 엄동설한 한밤에도 날이 밝도록  
 등잔심지 돌구고 돌구시던 그이  
 백두에서 남해의 한끝까지  
 삼천리의 어둠 가셔주시던 은인의 빛발이여  
 항일의 20성상

오, 80평생 위대한 생애를  
 불처럼 뜨겁게 사신 아버지수령님  
 애국애족의 불같은 한평생 다 말해주는  
 사령부창가의 꺼지지 않는 불빛이여

어제는 삼천리강토우에 해방의 새봄 불러  
 오늘은 삼천리강토우에 통일의 새봄 불러  
 민족의 앞길 휘황히 밝히며  
 언제나 해불처럼 타오르리라

## 숙 영 지 의 외 리 소 리

- 삼지연대기념비의 《숙영》편 군상앞에서 -

김 송 립

호르는 세월도  
 항일전의 숙영지 그 밤만은  
 실고갈수 없었던가  
 모닥불 타오르는 밀영의 밤  
 투사는 피리를 부네

내 마음엔 들려오네 투사의 피리소리

어이 알라  
 수령님 들려주신 만경대이야기  
 밤깊도록 그 품에 안겨 들으며  
 유채꽃 노랑계 편 고향 남해가  
 푸른 물결 그려 본 그 투사가 아닌지

떠나온 고향 가고싶은 고향을 그려  
 늘 부르던 사랑가  
 이밤 피리에 담아 은은히 울리는가

수령님 모시고 다도해기슭

고향집 트랙에 들어서리라던 투사  
 꿈속에서 그리던 동생들  
 꿈만같이 품어안고  
 어머니 품에 얼굴 묻겠다면 애어린  
 투사

그래서 오늘도 항일의 투사  
 이 백두산전구를 떠나지 못하는가  
 가야 할 고향이건만  
 갈수 없는 고향이어서  
 그 못 잊을 고향 애라게 그려  
 피리를 놓지 못하는가

허나 생 눈을 씹어삼키며 피를 바쳐  
 백두에서 열어놓은 해방의 길  
 그 길은 아직도 남녘에 가닿지 못했거늘  
 죽어서도 가리라던 고향  
 그 열망엔 70년세월의 아픔 흐르고있다

아, 투사가 울리는 피리소리  
 삼천리강산에 온 민족이 함께 모여사는  
 통일의 그날 이루어 우릴 부르는  
 백두산의 당부로 무겁게 새겨지네

## 8월의 백두산에 눈이 내리네

- 한 해외동포가 부른 노래 -

김 윤 식

가없이 푸르른 하늘  
 햇빛은 눈부시게 뜨거운 8월이건만  
 백두산상에 선 내 마음속엔  
 눈이 내린다  
 흰눈이 소리없이 내려쌓인다

이 산정 그 어느 곳이나  
 희생된 전사를 언땅에 묻을 때  
 쏟아지는 눈 다 맞으며 그이 서계신 곳  
 붉은기폭에 내려 쌓이던 눈은  
 주석님 마음속에 성스러운 추억을 부르며  
 한평생 내리고 내리었거니

내 마음의 하늘을 가득히 메우며  
 내리고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간고한 항일의 혈로를 헤쳐오신  
 주석님 생각  
 빨찌산장군을 못 잊는 우리 마음에  
 백두가 없어주는 추억의 흰눈이여

백두의 그 눈을 맞으시며  
 이어가신 험로역경의 길은 얼마  
 내 사는 동북방에도 있어라  
 천교령과 라자구 소양청...  
 주석님 헤쳐오신 결전의 그 언덕들이

세상에 눈처럼 가벼운것 없다했지만  
 아니여라 우리 주석님께 있어서  
 눈처럼 무거운것 있었었던가  
 조국의 운명 겨레의 피절은 아픔이  
 천근만근으로 실리던 백두의 눈

위대한 한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시절  
 백두의 눈보라속에 보내신 주석님  
 두손으로 소중히 쓸어보는 부석은  
 그이 항일의 나날 맞으신 그 많은 눈이  
 돌이 되어 녹지 않고 이 산정에 놓여있  
 는듯

그 눈  
 그이 어깨우에 내리고 쌓여  
 언제한번 녹아본적 있었던가  
 허리치는 장설 헤치는 혈전의 행로우에  
 늘 젖어있던 빨찌산군복  
 차디찬 눈우에 한겹 모포를 깔고  
 잠 못드신 그 밤이 이 가슴 치누나

아, 기어이 안아와야 할 통일의 새봄  
 주석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  
 백두의 녀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힘차게 힘차게 마중가라고  
 겨레를 부르며 부르며  
 8월의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 백두는 통일의 새봄 불러 외성친다

김 영 일

그 지맥 피줄처럼 삼천리에 뻗었다  
 천지의 물 동서해로 굽이쳐 흐른다  
 저 멀리 한나산까지 품어안아 조종의 산  
 백두산은 8월의 퇴성 터치올린다

성산  
 오늘은 그 산정에  
 백두의 퇴성으로 통일을 부르시는  
 위대한 령장께서 서계시거니

빨찌산 김대장 찾아주신 조국  
 그것은 돌로 갈라진 강토 아니었던건만  
 해방과 함께 시작되어 70돌기를 아프게 감  
 아온

태동하는 눈보라에 백포자락 날리시며  
 백두전구에 계시던 수령님처럼  
 칼바람 눈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저 멀리 남녘의 한끝까지 굽어보시는  
 그이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아, 분렬의 비극이여 백두의 퇴성엔 그 세월의 분노가 서려있다

온갖 불의 결단코 용납 앓는 백두산  
 본때  
 삼천리 내 조국의 허리를 동강내고  
 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침략자 미제  
 이 땅우에 사품쳐 호르고 호른  
 겨레의 피눈물로 살찌운 반역의 무리들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누구나 그이의 뜻을 거스르는자  
 백두산 하늘아래 숨릴 곳 있으랴  
 그이 억척같이 지니고 계시는  
 통일의 힘 통일의 억센 의지는  
 백두산의 힘! 백두산의 의지!

듣느냐, 강토여 겨레여  
 백두의 퇴성을  
 그것은 분렬민족의 가슴을 헤쳐  
 심장을 광황 들때리는 시대의 크나큰 울림  
 분렬주의자들의 정수리에 번개치는  
 무자비한 징벌

들으라 백두의 후손들아  
 백두의 힘 백두의 기개가  
 온 강토에 찌렁찌렁 내뿜치는 소리다  
 통일의 길로 역세계 일떠서라  
 겨레를 부르는 소리다

오, 항일의 김대장 오르시여  
 조국해방의 의지 첩첩층암에 버리시던

태양의 빛발아래 해방의 새봄이 왔듯  
 통일의 새봄도 밝아온다고  
 김정은 그이만을 믿고 따르라고  
 천리수해를 뒤흔들며  
 파르릉- 파르릉-  
 백두는 통일의 새봄 불러 퇴성친다

# 해방 70년 - 민족의 어제와 오늘

##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백두산대국으로

뜻깊은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한 이 시각 우리 겨레는 커다란 걱정속에 조선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고 있다.

돌이켜보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해온 우리 민족이 20세기초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되던 참에 안되었던것은 국력이 약했기때문이다. 력대 조선봉건통치배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에만 매달리면서 자기 힘을 키울념을 안하였고 그 결과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졌다. 하여 이 땅은 렬강들의 각축전 마당으로 짓밟히다 못해 끝내는 대포를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항거조차 못해보고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딛고 설 땅은 있어도 제 나라가 없었고 울림픽에 출전해도 국기가 없었으며 조선사람이면서도 제 이름을 부를수 없었던 식민지약소국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다.

오죽했으면 아! 조선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굳세지를 못하였느냐, 왜 남과 같이 슬기롭지를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더냐며 비애와 통탄의 눈물만 흘리겠는가.

그러했던 조선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인가.

사람들은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연설을 뜨거운 걱정속에 되새겨보군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다고,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이상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

나라 도리어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그대로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에 대한 긍지에 넘친 선언이었다.

력대로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 비대한것대로 비대한진 미국이었다고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면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온 미국이었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된 청소년 공화국이 렬사상 처음으로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고 그 승리의 전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 공화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무적의 타격수단들도 척척 만들어 낼수 있는 자위적국방공업의 막강한 힘을 가진 군사강국, 세계에 몇 안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되었다. 지난 5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된것도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한세기전 제 나라 왕국을 지키는것마저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길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취약했던 어제날의 조선이 오늘은 그때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백두산대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비약의 돌풍을 일으키고있는 공화국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조선과 같이 자주를 정치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그것

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더는 없다. 《유일초대국》의 고압적인 횡포나 강박도 통하지 않는 조선이야말로 우리 행성에서 작으면서도 큰 나라, 명실공히 자주강국이다.》라고 격찬하고 있다.

오늘 우리 겨레는 백두산이 낳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민족부흥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우리러보게 하겠다는 철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시고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바야흐로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렬도밑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조선의 모습을 경탄속에 바라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망국노에서 자주적인민으로

나라가 해방되어 지난 70년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공포에서도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사대의존에 매달리다가 종당에는 나라마저 통채로 외세에게 빼앗겨야 했던 조선봉건왕조 500년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대주의를 국책으로 내세운 집권층의 무능과 그것으로 하여 사회에 만연되게 된 외세의존사상, 이것은 나라를 쪼먹고 나중에는 망국의 력사로 이어졌다.

렬강들에 의해 짓밟히는 《약소민족》의 운명을 숙명처럼 여기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결연히 일떠서지 못했던 백의민족이었다. 그러다나니 외세가 침략군대를 끌고와 망국조약을 날조하였을 때에도 수천만의 인민은 나라가 망하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웅당한 항거를 하지

못하였고 거리거리에서 눈물과 곡성으로 망국을 통탄하여야 하였다.

왜놈들에게 길가의 조약돌처럼 짓밟히고 땅도 잃고 고향도 잃고 지어 사랑하는 누이들과 련인들의 어여쁨마저 지켜줄수 없었던 너무도 가날프고 애처로운 조선인민의 모습을 어느 한 시인은 《봉선화》에 담아 네 모습이 처량하다고 슬프게 노래했었다.

그러던 그 인민이 오늘은 자주적인민으로 존엄과 위용을 한껏 떨치고 있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주에 살고 자주로 부강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조선이 가는 정의와 애국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적대세력들이 세기를 이어 갖은 제재와 압살책동에 매달려와도 추호도 끄떡없이 내

가 사는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웨치며 렬도자를 따라 자주의 한길, 선군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어나가는 공화국의 군대이고 인민이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식으로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해가는 공화국의 인민들에게는 미국이 특독히 재미를 본 그 무슨 《색갈혁명》도, 《세계화》도, 《아랍의 봄》도 통하지 않는다. 구호를 웨쳐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고 웨치고 노래를 불러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부르며 다쉬워두 노예의 운명은 다시 원치 않는다는 자각과 결심으로 고난의 행군도 웃으며 헤쳐나간 신념의 강자, 랑만의 소유자들이 공화국인민들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강한 자주적인민으로 되게 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이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정치이다.

자주정치가 펼쳐지는

이 땅에서는 적대세력의 압력과 위협을 박차고 선군조선의 위용을 과시하며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에 치닫고 자위의 핵력성이 행성을 크게 진감시켰었다.

하기에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남동포들과 해외동포들도 《부의 공기를 호호하느라 사대주의와 식민지사관, 렬등감이 없애고 당당해진다.》고 하면서 자주성이 강한 인민,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 40여년의 근 두배에 달하는 70년의 오랜 세월 미국의 지배가 계속되고 그속에서 사회가 통채로 친미굴종, 종미에 쩌들어 망해가고있지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공화국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자주의 기치가 변함없이 높이 휘날리고있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본사기자 고영숙

## 수기 해방동이로서 하고싶은 말

남으로 나갈 때 그 길이 일제총칼밑에 신음하던 부모세대처럼 망국노의 명예를 걸머지는 길임을 어찌 알았으랴.

조국해방 일흔둘을 맞고보니 가슴속에 차넘치는 걱정을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운이 좋게도 나는 조국이 해방되던 해에 태어났다. 사람들은 해방동이인 나의 운명이 해방의 환희속에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해방후 내 인생의 절반이상 은 식민지암흑땅에서 흘러왔다.

해방후 장군님 주신 땅에서 땅이 꺼지듯 농사를 지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온 가족이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의 원자탄공갈에 남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5살 어린 나이에 부모의 등에 업혀

남으로 나갈 때 그 길이 일제총칼밑에 신음하던 부모세대처럼 망국노의 명예를 걸머지는 길임을 어찌 알았으랴.

해방의 만세소리는 삼천리강토를 진감하였건만 조국의 절반땅인 남조선에서는 날강도 미제가 틀고앉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주인공세를 하고있었다. 《정권》이란 허울뿐이고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위정자들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온갖 매국배주행위를 일삼고있었다.

사대매국노들은 미제의 강도적요구에 따라 술한청장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죽게 했다. 1965년 9월 괴뢰해병대에 있던 나는 월남으로 파병되는 동료들을 눈물속에 바라주었다. 그때 떠나간 동료 3명중 한명은 가자바람으로

죽고한명은 발목이 잘리었으며 또 한명은 정신병자가 되었다.

서울 동작동에 가면 미국의 대포밥으로 끌려가 죽은 청장년들의 묘가 있다. 격분을 금할수 없게 하는것은 묘앞에 《조국을 지키다 순직한 영령들이여, 고이 잠들라.》라고 써놓고있는것이다.

미제의 대포밥이 되어 개죽음을 당한것이 어찌 《조국》을 지킨것으로 된단 말인가.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미제의 대포밥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이여, 일어나 싸우라.》고 써야 하지 않겠는가고 늘 생각하곤 하였다.

그뿐이랴.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재난을 당하고 피흘리며 죽어갔던가. 생각할수록 외세의 발굽밑에 신음하는 남조선사회가 저주스러웠다.

그러던 1968년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이 최신형무장함선이라고 자랑하던 《푸에블로》호가 공화국의 렬해에 들어갔다가 해군경비정에 나포된 것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사상에서 주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토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 무적필승의 선군위력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가는 위대한 선군의 우리 조국.

이것이 바로 내 안목사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다. 자주의 락원과 식민지 지옥!

이것이 내가 본 두 제도에 대한 평가이다.

한지맥을 이은 우리 겨레가 언제까지 이렇게 관대한 세상에서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혈육들이 있는 남남땅에도 자주의 해발이 밝게 비쳐야 한다. 그날을 위해 남은 생을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정구진



# 나라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70년

나라의 해방과 함께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새롭게 시작된 민족분렬의 비극이 어언 70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70년은 공화국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애국애족의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력사이다.

미국의 음모로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북은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을 반영하여 평양에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여 분렬로선에 타격을 가하고 민족단합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정세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특히 1970년대초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폭넓은 북남협상방침

을 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 원칙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고 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시어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

를 펼쳐주시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무분별한 《핵》소동으로 말미암아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던 1990년대에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발표하심으로써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북남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제안, 대민족회의소집제안,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 군축제안, 북남직접사회담제안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회담제안 등 민족적단합, 통일을 위한 수많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피를 나눈 동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화국은 지난 기간 남녘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물질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었다. 특히 1984년 수해로 남조선수재민들이 재난을 입었을 때에는 흰쌀과 천, 세멘트, 의약품 등 수많은 구제물자를 보내줌으로써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혼을 받드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진수로 하는 불멸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었으며 격동적인 6.15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이 공동선언에 따라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남을 래왕하며 대화하

고 협력하고 통일행사를 펼치던 감격의 시대를 겨레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북남수뇌분들이 합의채택하고 온 겨레가 지지찬동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에 매달려온 남조선당국의 배신적인 행위는 온 겨레의 규탄을 받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세해전 4월,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하신 연설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이고도 획기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중대립장도 천명하시었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공원을 산책하던 나의 귀전에 문득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통일렬차 달린다 부산  
행렬차 달린다  
통일렬차 달린다 호남  
행렬차 달린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들이 통일렬차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놀이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 입을 속으로 노래를 따라 불러보는 나의 뇌리에는 문득 25년전에 열렸던 민족공동의 첫 통일행사인 범민족대회가 방불하게 떠올랐다.

세월은 류수와 같아 나도 어느덧 머리에 흰서리를 엮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동반한다지만 수많은 대표들이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조선은 하나다!》, 《조국통일》 등의 구호들을 웨치고 화답하며 통일열기를 느꼈던 범민족대회의 날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범민족대회는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시작한 통일대행진을 판문점으로 이어가며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내외반통일세력과 끝까지 결산할 각오로 민족의 넋이 끊어번지게 하였으며 속일수 없는 혈육의 뜨거운 피가 맞잡은 손마다 통하고 가를수 없는 육친의 따뜻한 정이 서로의 눈가를 뜨겁게 달구어 단일민족의 순결함을 뽐냈어 자랑하게 하였다.

그때 대표들은 행사의 마감차례로 통일렬차놀이를 하였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란만한 웃음을 띠고 참가자들모두가 하나의

통일렬차를 만들어 행사장을 빙빙 돌던 신나던 일이 눈에 삼삼하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속에 잘 알려진 노래 《통일렬차 달린다》는 주제 50(1961)년에 민족의 통일원을 담아 박산운이 가사를 짓고 모영일이 곡을 달아 태어난 시대의 명곡이다. 조선사람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미국노략에 없어 누구나 이

렬차가 금방 서울에, 제주도에도 도착하는듯 한 감동과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 성수가 나서 즐겁게 진행되는 놀이이다.

그 즐거운 통일놀이는 6.15의 빛발아래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도 펼쳐졌고 평양의 하늘아래 또 서울과 개성에서도, 민족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펼쳐졌었다. 어디 조선반도에서만이 아니라, 이역

이 흘러왔다. 지난해 8.15를 맞으면서는 하나가 되려는 민족의 열망을 안고 재로동포들이 참가한 백두-한나자 동차행진대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남해의 끝까지 국토를 종단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한사람의 힘은 크지 않다. 그러나 백명, 천명, 만명, 나아가서 7천만이 통일렬차가 되어 달린다면 그 힘을 막을수 있는 이 세상에 없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렬차를 타고 종차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때 원한의 분개선도 날아나고 미군의 대포도 짓이겨지고 겨레는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리라.

... 질풍같이 몰고가세 통일일의 무쇠철마차창밖에 어둑어둑 남녘형제 반겨온다 ...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통일렬차는 오늘도 부산으로, 호남으로 달리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박영철



이 흘러왔다.

지난해 8.15를 맞으면서는 하나가 되려는 민족의 열망을 안고 재로동포들이 참가한 백두-한나자 동차행진대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남해의 끝까지 국토를 종단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한사람의 힘은 크지 않다. 그러나 백명, 천명, 만명, 나아가서 7천만이 통일렬차가 되어 달린다면 그 힘을 막을수 있는 이 세상에 없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렬차를 타고 종차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때 원한의 분개선도 날아나고 미군의 대포도 짓이겨지고 겨레는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리라.

... 질풍같이 몰고가세 통일일의 무쇠철마차창밖에 어둑어둑 남녘형제 반겨온다 ...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통일렬차는 오늘도 부산으로, 호남으로 달리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박영철

이 흘러왔다.

지난해 8.15를 맞으면서는 하나가 되려는 민족의 열망을 안고 재로동포들이 참가한 백두-한나자 동차행진대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남해의 끝까지 국토를 종단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한사람의 힘은 크지 않다. 그러나 백명, 천명, 만명, 나아가서 7천만이 통일렬차가 되어 달린다면 그 힘을 막을수 있는 이 세상에 없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렬차를 타고 종차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때 원한의 분개선도 날아나고 미군의 대포도 짓이겨지고 겨레는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리라.

... 질풍같이 몰고가세 통일일의 무쇠철마차창밖에 어둑어둑 남녘형제 반겨온다 ...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통일렬차는 오늘도 부산으로, 호남으로 달리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박영철

이 흘러왔다.

지난해 8.15를 맞으면서는 하나가 되려는 민족의 열망을 안고 재로동포들이 참가한 백두-한나자 동차행진대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남해의 끝까지 국토를 종단하여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

한사람의 힘은 크지 않다. 그러나 백명, 천명, 만명, 나아가서 7천만이 통일렬차가 되어 달린다면 그 힘을 막을수 있는 이 세상에 없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렬차를 타고 종차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때 원한의 분개선도 날아나고 미군의 대포도 짓이겨지고 겨레는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리라.

... 질풍같이 몰고가세 통일일의 무쇠철마차창밖에 어둑어둑 남녘형제 반겨온다 ...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통일렬차는 오늘도 부산으로, 호남으로 달리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박영철

이 흘러왔다.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리춘일참사와 나눈 대담 ◇

기자: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은 지금도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고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 험난한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이 땅에 사는 겨레는 누구나 통일을 바라는데 분렬의 세월은 해를 이어 계속되고있다.

현 시점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 통일에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리춘일: 그것은 명백히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해나가는것이다.

북남공동선언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북과 남이 서로 먹고 먹히우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통일의 넓은 길로 나아갈수 있게 하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환히 명시되어있다. 하기에 북남공동선언들을 자주통일의 대강,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누구나 말하는 것이 아닌가.

북남공동선언들이 통일을 위해 얼마나 좋은 선언들이냐 하는것은 격동적인 6.15시대가 잘 보여 주었다고 본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서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의 명산 금강산과 평양, 서울 등지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수십년동안 막혀있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북남경제협력의 옥동자》로 불리운 개성공업지구에서 민족경제협력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었다. 한마디로 6.15통일시대는 우리 겨레가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를 실재한 현실로 펼쳐보인 감격과 환희의 날이었다.

지금 누구나 그때를 그리워하며 온 겨레가 열싸 안고 사상과 정견, 신앙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를 웨치며 통일의 대하에 용약 뛰어들었던 6.15시대가 바로 통일이었다고 말하고있다.

기자: 지금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 하고 《대화》에 대해서도 떠들고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공조에만 매여달려 침착전쟁연습과 동족고살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당국은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기 위한 공화국의 획기적이고 중대한 제안들을 거둬 외면하고 외세와 함께 대규모 전쟁연습강행, 반공화국 《인련》소동, 삐라살포, 반북대결망언 등 대결과 전쟁책동에만 매달려왔다. 이것이 부족하여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치기 위한 《울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을 또다시 벌리려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변함없는 동족대결책동의 밑바탕에는 범죄적인 체제대결, 《흡수통일》야망이 자리잡고있다는것은 세상이다 아는 사실이다. 동족의 존엄높은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해치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대결의 칼을 계속 가는 상대와 어떻게 신뢰의 마음에서 대화를 하고 관계개선에 해나갈수 있겠는가.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에 계속 대결의 빗장을 지르고있는것은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통일열망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온 겨레의 규탄을 받는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분렬의 장본인인 외세의 꼭두각시가 되어 통일에 역행하겠는가, 아니면 동족과 진정으로 손을 잡고 화해와 협력의 새 력사를 쓰겠는가 하는 두 갈래의 길에서 자기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것이다.

기자: 지금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한다 하고 《대화》에 대해서도 떠들고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춘일: 말로는 《존중》이니, 《대화》니 하지만 현 《정권》이 출현하여 3년째 되는 오늘까지의 행적을 보면 결과속이 판이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여기에 배치되게 외세의존, 외

#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불타는 의지의 과시

## 조국해방 70돛기념 민족통일대회 개막, 자주통일대행진 백두산출정식 진행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갈 겨레의 열망이 날로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13일 조국해방 70돛기념 민족통일대회가 개막되었다.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민족통일대회는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만고절세의 애국공적을 길이 빛내이며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겨레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

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국해방 70돛기념 민족통일대회 자주통일대행진 백두산출정식이 이날 진행되었다.

끝없이 출렁이는 천지의 푸른 물과 저 멀리 남해기슭까지 하나의 지맥으로 뻗어 나간 산발들을 품에 안고 거연히 솟은 조종의 산 백두산정에 오른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속에는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출정식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원들, 근로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국해방 70돛기념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조국

통일범민족련합 공동사무국대표단,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재미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대표단,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대표단과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 회장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된 출정식에서는 김영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명예공동위원장이 조국해방 70돛기념 민족통일대회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통일에 대한 애국의 열망과 강렬한 의지를 안고 조국해방 70

돛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낸다고 하였다.

백두산은 항일의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헤치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이 깃들여있는 혁명의 성산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존귀하신 존함과 더불어 만방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 백두산에서 강성부흥할 통일조국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번 대회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자주통일의 장엄한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통일대행진을 적극 추동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대회개막이 선언되자 《번영하라 조국이여》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대회기발을 든 기수들이 출정식장에 입장하였다.

출정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출정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속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을 받들어 이 땅위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등의 구호들이 힘있게 울려나왔다.

출정식이 끝나자 행진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기어이 조국통일의 역사적사변을 안아오고야말 겨레의 뜨

거운 애국열의를 안고 공화국기들과 대회기발을 선두에 휘날리며 행진을 시작하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조선은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실현》 등의 프랑카드들을 들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백두산통일강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행진대성원들이 목청껏 웨치는 구호들은 백두대지를 진감하며 남녘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강산을 진감하는 자주통일의 함성**

민족의 통일열망을 안고 펼쳐진 조국해방 70돛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어 이 강산을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구고있다.

8월 13일 아침, 민족의 성산 백두산정에서는 공화국의 여러단체, 각계층 군중들과 수많은 해외동포대표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자주통일대행진 출정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백두의 칼바람에 통일기를 펄펄 날리며 천지가 바라보이는 산마루를 향해 앞을 다루어 달려가는 대표들, 솟구치는 걱정에서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를 열정에 넘쳐 부르는 사람들...

그들속에는 낮이 익은 해외동포들의 얼굴들도 보였다.

백두산에 오르니 항일의 나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헤쳐오신 피어린 자욱이 더욱 눈물겹게 안겨온다고, 우리가 사는 동북의 항일전구들에 새겨진 주석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말하는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한 재중동포대표는 《열마전 재중총련에서 길림, 교화, 돈화, 안도를 비롯하여 주석님의 조국해방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을 답사하면서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고 하면서 시의 한대목을 읊기도 하였다.

우리는 높이 웨치노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그 업적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고 ...

백두산마루에 오른 립민식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의장의 심정도 천지의 물결처럼 세차게 일렁이였다. 그는 바람세찬 이역땅에서도 해외동포들이 조선사람으로서 가슴을 짝 펴고 살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존엄높은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셨기때문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해외에서도 백두산을 늘 마음에 안고산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백두산에서 진행된 자주통일대행진 출정식에서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야말로 항일의 20성상 백두밀림을 주름잡으시며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격정에 겨워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할 불같은 열의는 대행진과정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다.

대행대렬에 선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은 항일의 나날 김일성주석님께서 그려보신 해방된 조국은 하나된 삼

천리강토였지 둘로 갈라진 조선이 아니었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하나의 조선로선을 받들고 하루빨리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은 하나다!》 구호를 웨치였다.

그에 화답하듯 대행진참가자들은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라고 웨치며 백두에서 시작된 오늘의 대행진을 판문점을 거쳐 남해의 한나산까지 이어갈 기세드높이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장금숙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중앙위원은 항일의 김대장 오르시어 조국해방의 의지를 버리시던 태양의 성산에 오늘은 백두의 퇴성으로 통일을 부르시는 위대한 령장께서 서계신다, 태동하는 눈보라에 백포자락 날리시며 백두전구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통일의 힘, 통일의 역센 의지는 백두산의 힘이고 7천만 겨레의 의지라고 하면서 그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을 앞당겨올 결의를 다지였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통일을 이룩해갈 해내의 각계층 대표들의 열기면 목소리는 14억 평양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련환모임장에서도 뜨겁게 울려 8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흥범식

**해방의 기쁨을 알린 평양종**

평양의 오랜 역사유적인 대동문의 옆에는 슬기로운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전하는 평양종이 있다.

평양종은 1726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부벽루 서쪽뜰에서 주조완성된 것이다.

종의 질량은 12t 914kg이고 높이는 3.1m이며 아구리직경은 1.6m나 된다.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종명 등이 조각되어있다. 걸고리는 쌍룡틀임으로 하였는데 통머리의 형상이 생동하다. 평양종은 당시 객사이던 대동문앞에 종각을 짓고 걸었다.

지금의 종각은 1827년에 고쳐 지은 것이다. 먼 옛날부터 평양성에서는 아침, 저녁에 울리는 평양종의 종소리로 모든 성문들이 동시에 여닫기였고 성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이

이 종소리로 알려졌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는 회수에 제한없이 울려 인민들을 애국성전으로 불러일으키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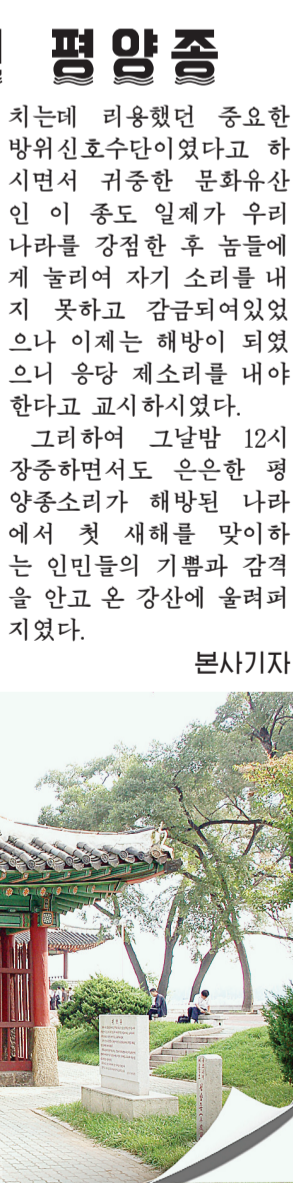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 시기 손꼽히는 큰 종 가운데 하나로서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알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 첫 설날을 앞둔 1945년 12월 31일 대동문옆의 평양종을 지금도 칠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이 종은 우리 선조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물리

치는데 리용했던 중요한 방위신호수단이었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을 이 종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놔둘게 놀리며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감금되어있었으니 응당 제소리를 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그날밤 12시 장중하면서도 은은한 평양종소리가 해방된 나라에서 첫 새해를 맞이하는 인민들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온 강산에 울려 퍼지였다.

본사기자





# 《한국》의 《정통성》을 해부한다

남조선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http://www.aindf.com)에 《한국자주정치연구학회》연구원 백산전 이 쓴 글 《〈한국〉의 〈정통성〉을 해부한다》가 실리었다.

글의 전문을 소개한다.

은 겨레가 해방의 기쁨, 재생의 감격에 목매여올던 8월이다.

70년전 상가집 개만도 못한 망국민의 운명에서 허덕이던 2천 4백만 백의동포가 당당한 자주독립국의 일원으로 거듭난 뜻깊은 8월이고 그래서 민족재생의 은인에 대한 경하와 숭상 열기로 더욱 뜨거운 8월이다.

그런데 이에 역행하는 망동이 어두운 구석에서 횡행하고있다.

최근 《한국》 정계와 역사학계에서 공공연히 나날고있는 그 무슨 《3.1 독립정신계승》이니, 《상해림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정부》니 하는 요설들이 바로 그러하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어찌 민족사적정통성의 본질과의 미마저 달라질수 있단 말인가.

《한국》위정자들이 저들의 반역사를 미화해보려고 꾸며낸 궤변의 정체를 발가놓는것은 이 땅의 지식인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 \*

일반적으로 정통성이라고 할 때 곧바로 이어오는 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해서 정통성이란 그 어떤 사회집단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짓는 역사적 뿌리와 흥망성쇠로 굴곡질 역사의 변천속에서 자기 혈통의 순결성을 지켜가려는 계승성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정권》은 그 어떤 정통성도 없는 미국과 일본의 사생아에 지나지 않는다.

사생아는 법적으로 담보된 혈통을 지닐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정권》은 애당초 민족사적정통성에 대해 혼합 자격과 명분조차 없다.

구태여 정통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매국과 반역의 정통성, 반민족과 반통일의 정통성이라 이름해야 옳을것이다.

《한국정권》의 《정통성》은 친일매국의 정통성이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의 주체인 근로민중이 체현하고있으며 민족사의 당당한 명맥을 이어오고 이어갈 민족사발전의 근본바탕인 민족자주정신이다. 역사적전지에서 볼 때 민족자주를 위한 우리 민족의 명맥은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의해 이어졌지 《상해림정》에 의해 이어진것이 아니다.

《상해림정》에 대하여 말한다면 1919년 3.1인민봉기이후 중국에 망명해간 우국지사들이 만들어낸 망명정부의 형태를 띤 하나의 독립운동단체이며 그것도 주류가 아니라 지류에 불과한것이였다.

하기에 장개석국민당정부도 《상해림시정부》를 일종의 대일교전단체로서 《사실승인》이라는 외교조치로 통지했을뿐 정부로서는 애당초 상대도 하지 않았다.

1945년 6월 미국무성도 《림정》은 조선반도의 어느 한 지역도 행정적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실질적이고도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있으므로 승인할수 없다고 통고하였으며 8.15이후 미군정은 남 《한》 땅에 발을 들여놓은 《상해림정》 관계자들을 정부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맞아들였던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떠나 《상해림정법통》과의 상관성만을 따져놓고보아도 미국에 의해 조작된 리승만단독 《정부》는 《림정》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1948년 5월 31일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으로 자임한 리승만은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립시정부의 계승》이라고 력설하였는데 그가 말한 《립시정부》란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수립한 《상해림시정부》가 아니라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4월 23일 서울에서 조작된 《한성림시정부》라는 유령의 실제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백범 김구는 《상해림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리승만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해버렸던것이다. 더우기 《상해림정》의 법통인인장역시 김구자신이 김일성주석을 우리 민족의 유일한 령수로 칭송하며 그이앞에 바치겠다고 내놓았다가 주석께서 우리는 인민의 신임이면 다라고 하시며 사양하신것이다.

《상해림정》의 법통은 《한국》 당국에 의해 계승된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사멸되였다.

미국의 비호밑에 《한국》에서 《단독정부》를 조작한 리승만은 《대동단결》을 표방하면서도 권력의 실체를 모두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들로부터 꾸며냈다. 리승만 《정권》이 조작될 당시 립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요직에는 물론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군부에는 《간도토벌대》의 간관을 쓰고 항일유격대와 반일독립군을 악착스럽게 토벌하는데 앞장선 김석원, 정일권, 백선엽, 리용준을 비롯한 친일주자들이 주역을 이루었다. 리승만 《정권》 시기 《국무총리》를 지낸 6명중 3명, 법무부장관 8명중 5명, 검찰총장 6명중 5명, 치안국장 4명중 3명, 합동참모본부 의장 4명중 4명, 육군참모총장 8명중 8명이 모두 친일파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친일매국역적으로서의 리승만의 정체를 똑똑히 알수 있다.

리승만은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렬시켰으며 나중에는 그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림정》의 존재를 깡그리 말살시켰다.

애당초 리승만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한다며 미국에 가있을 때인 1918년에 벌써 자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밝힌 추악한 친일매국노이다.

이러한 매국간흉을 원조장으로 하는 《한국》의 위정자들이 항일, 독립을 표방한 《상해림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떠드는것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공공연한 외곡이며 김구를 비롯한 반일애국지사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한국정권》의 친일매국적정통성은 4.19인민봉기에 의하여 리승만이 거꾸러진 이후 《유신》군사파썸재자로 군림한 박정희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오카모도중위(처음 다카기 마사오로 《창세개명》했다가 순수한 일본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오카모도 미노루로 함) - 박정희는 《천황의 적자》를 자처하면서 반일애국인사들과 독립군에 대한 토벌에 날뛰는 극악한 친일매국노이다. 박정희는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이후 군부와 정치권에 친일인사를 대대적으로 박아넣었으며 일본사무라이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이 시기에 와서 《한국》은 말 그대로 왜색, 왜풍의 오염지대로, 가는 곳마다 계다짜울 때까거리며 하오리를 나풀대는 일본사무라이들의 활무대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이에 대하여 잡지 《말》 2001년 9월 1일호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는 립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한국사를 외곡하던 장본인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알량한 지식을 앞세우며 친일인사들이 독립유공자를 심사해왔다... 친일파들의 가장 파렴치한 행위로는 이들이 독립유공포상을 받고 국립묘지에 뼈것이 누워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친일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고도 남는 우리 현대사라 하겠다.》라고 개관하였다.

박정희가 얼마나 친일매국에 열을 올렸으면 그가 김제규의 총알에 비명횡사하였을 때 일본군우정객들이 《마지막황군이 죽었다.》고 비통해마지 않았겠는가.

## 《한국자주정치연구학회》연구원 백산전

최근년간 친일매국의 정통성을 합법화해보려는 《한국》위정자들의 책동은 더욱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빠속까지 친일》임을 자랑하는 오사카출신의 쓰기야마 아끼히로 - 리명박은 일본의 독도강탈과 력사의곡책동에 대하여 《좀 기다려달라.》고 애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롯한 일본군국주의제침책동에 적극 편승하였는가 하면 반일애국지사들과 독립군토벌에 혈안이 되여 날뛰는 백선엽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제작에 무려 6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퍼붓고 《백선엽한미동맹상》이라는 훈장까지 제작하는 민족반역적 망동을 저질렀다.

박근혜집권시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극우익단체인 《뉴 라이트》는 초, 중등학교 력사교과서에 저들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와 《단독정부》의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고 쪼아박아 세인의 지란을 받고있다. 문창국을 비롯한 극악한 친일친미매국노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느님의 뜻》이라느니,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축복》이라느니 하는 망언들을 빼놓지 않고 늘어놓고있다.

단체 신체호는 일제기 《역사는 력사를 위하여 서술하는것이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꾸며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하더나 왜 《한국》위정자들이 각계의 향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일제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매국찬미론을 입이 닳도록 제창하고있는것인가.

정권의 정통성은 정치의 기반이다. 정권의 존재와 정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부터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력대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은 친일과 군사독재의 정통후예들로 정치권력의 기반을 형성하고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가장 어두운 뒤구석도, 가장 큰 약점도 바로 친일매국으로 얼룩진 과거의 력사이다.

그렇기때문에 력대 《정권》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외곡하고 말살해서라도 친일매국과 민족반역을 합리화, 정당화해보려고 꾀하고있는것이다. 피줄은 속일수 없다.

박근혜가 《유신》독재자의 전철을 밟아 친일매국의 반역주자로 질주하는것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 최근 박근혜 《정권》이 아베와 공공연히 입맞추는것을 보면 머지않은 앞날에 남 《한》 전역에 《욱일승천기》를 날리는 일본군국주의후예들을 끌어들이는것으로써 저들의 친일매국의 《정통성》을 만천하에 과시할것이다.

《한국정권》의 《정통성》은 친미사대의 정통성이다.

얼마전 집권여당 대표라는자가 리승만을 《건국대통령》에 《국부》로 모셔야 한다는 얼빠진 망언을 얼굴 한번 불히지 않고 내뱉어 세간의 지란을 자초한바 있다. 이것은 《한국》위정자들이 말하는 《정통성》이란 다름아닌 친미사대매국의 정통성이라는것을 확증해준 하나의 실례라 하겠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1948년에 조작된 《한국정권》은 애당초 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의하여 수립된 합법적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민족분렬정책이 빚어낸 력사의 모물이다.

침미수구 《정권》의 원조인 리승만은 《독립운동》의 명색밑에 미국땅에 건너가 미국지배층과 긴밀한 편계를 맺고 식민지노복으로 길들여진 철저한 친미주구이다. 1919년 리승만은 《상해림정》에 보낸 《보고서》에서 독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다소를 물론하고 미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당시 미군대통령이었던 윌슨에게 보낸 《청원서》에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임통치》에 대하여 구걸하였다. 그로 해서 란핵을 당한 리승만은 《상해림시정부》

와 인연을 끊고 미국에서 망명객으로 떠돌던중

1942년 미중앙정보국의 전신인 전략정보국 차장 밀러드 군펠로우에게 포섭되어 《블랙(Black)》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전략정보국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8.15해방직후 군펠로우를 따라 맥아더의 전용기를 얻어라고 서울에 들어온 리승만은 군펠로우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넘겨준 《한국단독정부 수립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맹활약을 하였다.

리승만이 입만 썩이면 《미국이 없으면 나 리승만도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내가 숨을 쉬고 한국이 존재한다.》는 구경물같은 망언들을 토해낸것과, 《한국정권》을 떠받드는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국군》의 통수권까지 통채로 미국에 넘겨바친것도 바로 미국의 충실한 앞잡이,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 하겠다.

현 《새누리당》의 원조상인 리승만의 《자유당》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반통일분렬책동에 적극 추종한 친일파, 친미분자들의 소굴이었다. 쑥대밭에서 쑥대가 자란다.

리승만 《자유당》의 직계후손인 《새누리당》이 친미사대와 숭미굴종, 종미매국을 당론으로 하는것도, 리승만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력대 《정권》들이 미국의 버림을 받으면 순간도 존재할수 없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것도 력사의 필연이다.

리승만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면, 박정희, 전두환, 로태우 등 력대 《대통령》들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맹약한 친미분자들이었으며 이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제일먼저 찾은것도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주 《한》 미국대사관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과 식민지 지배를 직접 실현하는 현지총독부이다. 1949년 4월에 부임한 제1대 미국대사 존 무츠로부터 시작하여 제22대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에 이르기까지 주 《한》 미국대사들은 력대 《대통령》들의 목을 때고 불일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휘두르며 《한국》의 현대사를 좌우하였다. 《한국》에서 《정권》교체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미 국무부와 미중앙정보국의 직접적지시를 받는 미국대사들에 의하여 다음기 《대통령》으로 쓸 주구들이 선발되고 검증되였다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현 집권자도 례외가 아니다.

지난 3월 5일 발생한 리퍼트칼세세 사건은 종속관계에 있는 《한》미관계를 극명하게 조명한 또 하나의 정치만화였다. 피습사건이 러지자 중동행각중에 있던 박근혜는 일정을 앞당겨 부랴 부랴 돌아와 《위로》니 뭐니 아양을 떨었으며 그의 제부라는 신동욱이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느니, 《대사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빈다.》느니 하며 병원앞에 쭈그리고 앉아 《석고대퇴단식》 놀음까지 벌였다. 《국회》와 여야당의 정치인이라고는자들이 리퍼트가 입원한 병원으로 줄레줄레 《위문행각》을 벌렸으며 여기저기에서 《한》미동맹강화와 리퍼트의 《폐유를 기원》하는 《위로 공연》이라는것까지 벌어졌다.

오죽했으면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언론들까지 《한국에서의 과도한 반성과 사죄, 위로공연은 미국인들조차 의아해하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라고 비꼬았겠는가. 최근 다음기 《대통령》 후보 1위라는 김무성이 《한》미련합사령부를 찾아가 스캐퍼로티 주 《한》미군사령관을 업고 뽀박질함으로써 《미국산 버새》라는 기막힌 칭호를 수상한것도, 미국땅에까지 기신기신 찾아가 흥악한 6.25전범자 위커의 묘비에 묻은 오물을 제손으로 닦아내며 큰절을 올리는 구역질나는 추태를 부린것도 다 미국을 등에 업어와 《대권》욕도 성취할수 있고 명줄도 부지할수 있다는 생존본능의식, 친미사대에 썩어대로 찌른 《한국》 정치인에게는 그

한 기생적체질의 발로라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을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사실들을 상기해볼 때 친미사대가 《한국정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통성》으로 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한국정권》에는 자기의 고유한 정통성이 없다. 있다면 반민족, 반통일의 정통성이닌 《정통성》뿐이다.

그 어느 사회집단이든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은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한국정권》이 세상에 나온것자체가 민족의 자주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었다.

해방직후 미군용기를 타고 남 《한》에 날아든 리승만은 통일정부를 세울것을 요구하는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민족을 분렬시키려는 미국의 흉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독정부》수립에 발벗고나섰다.

리승만은 미국이 이미전부터 작성해놓은 각본과 적극적인 뒤받침밑에 《유엔림시조선위원회》의 감시하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5.10단선거》를 추진하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5.10단선》은 사실상 파탄되었으나 리승만은 투표자수와 득표율을 날조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기여올랐다. 이 순간부터 《한국정권》의 반통일적 《정통성》의 뿌리가 마련되게 되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리승만 《정권》은 《반공》을 《제1국시》로 삼고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말만 해도 부의 주장에 《동조》한 《리적행위》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박정희군사파썸재 《정권》역시 4.19광장에서 씩든 민주의 새 싹을 여지없이 짓밟고 7.4남북공동성명으로 밝아오던 통일의 서광도 10월 《유신》으로 빛을 잃게 하였으며 《한국》을 파쇼의 암흑시대, 민주의 폐허지대로 만들고 38°선에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을 구축하였다. 미제의 지령에 따라 광주를 피바다에 잠근 회색의 살인마 전두환, 로태우군사파썸재 《정권》은 당시 세대의 흐름으로 된 자주통일운동과 반미투쟁, 민주화투쟁을 어떻게 하나 막고 군부독재를 연장해보려고 발악하였다. 군부파썸재세력과 한이불속에 들어간 정치매춘의 대가로 권력을 차지한 김영삼 《정권》역시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하여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괴로 몰아갔으며 《문민독재》로 악명을 떨치면서 가혹이나 허약한 《한국》경제를 더욱더 외세의 손아귀에 내맡김으로써 IMF사태라는 비극까지 초래하게 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서 한때 좌관장사나 해먹고 청계천오물이나 걸어내던 리명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 최후의 궁극적인 목표》라느니,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쫓겨발전하던 남북관계를 완전파탄시키고 총포란이 오고가는 전쟁지경으로 몰아갔다.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통일은커녕 남북관계의 전도는 더욱 암울해졌다. 박근혜는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드레즈멘선언》이니 하는 허울좋은 《대북정책》들을 탐발하고 력대 그 어느 통치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통일준비위원회》까지 조작해냈지만 남북관계성적표는 북으로부터 가장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으로 락인찍힌 리명박을 무색케 하는 《F학점》(0점)이었다.

더우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올해에 남북관계에서 대변혁, 대전환을 가져올것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적화해, 단합에 대해서 꿈조차 꿀수 없게 만든 박근혜의 반통일적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지 못할것이다.

(10면으로 계속)

정세를  
침략으로  
몰아가는  
유일천만인  
남북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8.15를 맞으며 지금 겨레의 통일열망은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그런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호전세력은 무모한 전쟁도발소동으로 8월의 폭염보다 더 뜨거운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내외호전세력은 공화국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합동군사훈련에 웅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는것도 모자라 상투적수법으로 써오던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집어던지고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면서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비롯한 핵타격수단들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것이다.

한편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지난 12일부터 이달말까지 4차에 걸쳐 경기도 포천에서 통합화력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있다.

이 훈련에는 남조선과 미국의 47개 부대병력 2 000여명이 참가하며 수많은 탱크, 장갑차, 직승기, 전투기, 폭격기, 다련장로켓 등 대규모무장장비들이 동원된다. 1977년부터 시작되어 8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내외호전세력들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8월을 북침전쟁연습의 화약내로 뒤덮으려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는 위협천

만한 망동으로서 전체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미국은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소동들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번의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소동들이 보여주는것처럼 그것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분위기를 마련하자는 공화국의 진정어린 노력에 침략전쟁연습의 불몽치로 대담해나서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망동은 도저히 용납 못할 범죄이고 과연 이 땅에서 누가 평화를 바라고 전쟁을 원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내외호전세력들이 감히 불질한다면 침략의 본거지를 즉량쳐버릴 멸적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내외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이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루지도 못할 《제도통일》의 야망에 들떠 전쟁화약더미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이 호전세력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자멸의 시간이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응철

(9면에서 계속)  
보는바와 같이 역대 통치배들이 반통일대결망동을 일삼으며 민족의 통일념원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선것은 다 그들의 반통일적 《정통성》에 뿌리를 둔것이다.

역사를 외곡하거나 부정하는것은 정의와 진리를 거세말살하려는 역사의 반동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반인류적망동이다.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남 《한》 땅에 기여든 미군으로 하여 《한국》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장장 70년간이나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통탄해마지 않을 일이다. 그

러나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반역의 무리들이 수치와 모욕도 모르고 종일, 종미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저들의 《정통성》을 버젓이 내흔들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오늘 《한국》 위정자들이 역사적으로 저질러온 대역죄를 그 무슨 《정통성》 따위의 궤변으로 합리화, 정당화해보려는것은 애국렬사들이 피흘리며 개척해온 민족자주력사에 대한 우롱이고 전민족에 대한 모독이다.

력대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민족사적정통성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거역한자들의 운명이 어

떻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친일매국과 친미사대, 반민족과 반통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명줄을 이어가던 시대는 끝장났다. 《한국》 위정자들은 그 무슨 《정통성》 운운으로 최악을 덧씌우는 어리석은것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저들의 반역적범죄를 민족앞에서 청산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갖은 사실과 궤변을 엮어가며 역사의 진실을 외곡하려 들어도 백두산과 더불어 빛나는 참조국의 현대는 결코 흐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불을 줄기는자들의 운명은

지금 온 민족이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통일열기를 더욱 드높이고있는데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려 한다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우리 민족이 과연 누구 때문에 70년이 되도록 북과 남을 오도가도 못하며 분리의 뼈아픈 고통을 겪고있는가. 바로 미국놈들 때문이다.

그 미국때문에 전쟁의 참혹한 재난도 당한 우리 겨레이다.

그런데 이런 침략적인

그러고도 입으로는 《대화》니 뭐니하니 철면피한자들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 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공화국의 거둬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의 화약더미에 불을 단다면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게 될것이다.

평양시민인위원회  
교장 김철수

우리의 억센 주먹맛을 보여야

더우기 지금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웅징》이니 뭐니 하며 이번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미군의 스텔스 전투폭격기 B-2와 F-22 전투기를 끌어들이려 하는데 정말 가스롭기 그지없다.

결코 거기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지금껏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어제보려고 이 땅에 핵항공모함이나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허장성세한적이 어디 한두번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한갓 전쟁미치광이들의 발광으로, 제 죽을줄 모르고 헤딩비는 어리석은자의 망동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선군조선의

단호한 징벌의지를 보여 주었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선군조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전쟁연습의 총포성을 울린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억센 주먹맛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로농적위군 대원  
김금철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오늘은 마땅히 우리 겨레모두가 함께 경축해야 할 뜻깊고 의의깊은 명절이다. 지난 13일 백두산에서 시작된 민족통일대회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련환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성대히 벌어지고 여기에 공화국의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도 참가하고 있지만 유독 남측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민족통일대회에 남측인사들이 참가하지 못한것은 남조선당국이 그들의 북행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6.15공동선언발표 15돌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니 뭐니 하는 구실을 내세워 무산시킨데 이어 남측단체들의 이번 민족통일대회참가에 대해서도 《정치적행사는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미명하에 끝내 불허하는 망동을 부렸다.

통일념원에 찬물을 끼얹는다

남측통일대회참가자를 차단한 속심은 탄탄해 있지 않다. 이는 조국해방 70돌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겨레의 통일기운이 고조되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고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만을 고취함으로써 저들의 더러운 《체제통일》 기도를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흉심의 발로이다.

또한 남조선민간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손발을 꽂짱 얽어매놓아 저

들이 의도하는대로 북남관계를 더욱 격폐시키려는 음흉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통일대회에 남측인사들을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비렬한 책동으로도 부족하다.》느니 뭐니 하는 낮간지러운 소리만 늘어놓고있는것은 민족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개별적민간단체들의 민족통일행사참가마저 막아나서는 바르지 못한 속통을 가진자들에게 과연 그 무슨 《진정성》이 있고 평화통일의지가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겨레가 한자리에 모여 해방을 경축하고 통일을 바라는것도 못하게 가로막아나선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추태는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리어금

대대적 이어지는 침략전쟁행위

지난 10일 남조선당국자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라는데서 공화국이 새로운 평양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설정한데 대해 고들면서 《시간대마저 분리하려는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노력에 역행하는것》이니, 《분단고착》과 《교림의길》이라느니 하며 허바닥을 놀려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통일부도 대변인평영을 통해 《일반적인 표준시변경》과 《국제관계》를 떠들어대며 저들의 《대화제에 호응해 남북교류협력과 표준시간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뉘척했다.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날을 계기로 시간대용에서 남아있던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려는 공화국의 정당한 조치에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고있는 때에 오히려 이를 시비질하고 비방해나선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는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동족대결과 친일매국에 환장한 매국역적들의 히스테리적망

동이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일제는 조선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보다 손쉽게 하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만들 목적으로 국제판례에 따라 동경 127° 30' 을 기준으로 정해졌던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을 동경 135° 를 기준으로 하여 저들의 도꼬시간으로 바꾸어놓았다.

결국 이번에 공화국이 새로운 평양시간을 제정한것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을 되찾고 민족사를 바로 잡는 지극히 애국애족적인 조치로 된다.

더우기 공화국의 표준시간제정은 과학적전지에 서 볼 때에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이며 표준시간설정에 관한 국제판례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행사이다.

매국하는 저들의 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애국하는 동족을 시비질하고 증상하는것이야말로 동족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의식과 매국에 환장한자들이다.

독초의 뿌리에서 독초가 자란다고 공화국의 정당한 조치에 시비질해나선 남조선당국자의 추태는 제 예비인 《유신》 독재자의 친일매국행위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도 한때 조선반도를 기준으로 시간대를 바꾸어 리용해왔다.

본사기자 주광일

